

산업보건 정책방향



2003년

은 산업보건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한 해였다. 지난 7월 노사의 대립이 심했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의무가 확정되었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종전의 116종에서 191종으로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에는 특별한 산업보건기준이 없거나 미흡했던 사무실 오염, 농약, 방사선, 병원체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김 종 효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2003년 산업보건분야의 다른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업무상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월말 현재 7,00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8.12%나 증가했다. 근골격계질환자가 3,195명으로 109.4%(1,669명) 급증하여 업무상 질병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소음성난청, 특정화학물질, 금속 및 중금속 등 전통적인 직업병도 42.0%(452명) 증가하였다.

따라서 내년 산업보건정책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사업장에 정착시키고 업무상 질병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사업주는 2004년 6월말 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1~3월 중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등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근골격계질환 위험공정 보유 사업장 약 1,000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담당인력 및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점

을 감안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직접 실시해 줄 계획이다. 또한 노사가 자발적으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50~300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에서 인간공학적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수창고, 건설, 건물관리, 금융, 위생 서비스업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업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직장건강증진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업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시설장비구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전파하는 등 근로자 건강증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할 것이다.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소음·분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중점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쉽지 않은 곤란한 소음·분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력·호흡기 보호프로그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해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95,000개소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하여 건강진단의 질병 조기발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업무상 질병이 오랜 시간을 두고 발생하듯이 산업보건정책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절한 산업보건정책의 수립도 필요하지만 정부, 근로자, 사업주 및 산업보건전문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04년에도 산업보건의 한 단계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